

광주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어떻게 열리나

'다이나믹 청소년' 4만여명 축제

광주시 각계 42명 참여 추진위 구성 출범식 유네스코 총장 강연·청소년 인권 선언 채택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나흘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다이나믹(Dynamic) 청소년-대한민국 에너지(Energy)'(가칭)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여서 의미가 크다.

추진위 공식 출범=광주시는 올해 청소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범시민적 역량 결집을 위해 광주추진위원회를 구성, 29일 오전 11시 광주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박람회 추진위원장(당연직)을 비롯한 4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참석, 부위원장과 감사,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고 향후 활동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추진위에는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강정재 전남대 총장, 전호중 조선대 총장, 강병연 한국청소년인권

센터이사장, 남부원 광주YMCA사무총장,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등 정·관계, 청소년단체, 학계, 시민단체 인사 4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발족된 추진위는 앞으로 시민 행사 참여 홍보와 국내·외 청소년·평화 관련 인사 참여, 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 지원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

시는 추진위 산하에 3개 팀 9명 규모의 사무국을 설치해 행사기본계획 수립과 집행, 회의 및 전시행사 진행, 숙박 및 수송 지원을 맡도록 했다.

어떻게 치러지나=직업진로 교육과 직업 체험, 위킹 홀리데이, 금연교실, 포토컨테스트, 동아리활동을 비롯 전시와 강연, 세미나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가 마련된다. 동아리공연과 UCC(사용자제작콘텐츠) 경연, 온라인 이벤트 등 부대 행사도 곁들여진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유엔(UN) 전문기구인 유네스코(UNESCO) 마츠우라 코이치로 사무총장을 초청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연을 준비 중이다.

당초 반기문 UN사무총장을 초청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영상메시지로 대체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민주·평화·인권도시로서 광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세계청소년인권·평화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자매도시인 인도네시아 메단과 일본 센다이시 청소년 40명, 영남지역 청소년 1천명을 초청하는 등 국제·영호남교류도 추진 중이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 광장 특설무대와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는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이틀동안 열린다. 광주의 첨단산업과 문화수도, 하계U대회 유치 홍보를 위한 특별홍보관도 운영된다.

정병해 광주시 청소년육성담당관은 "박람회에는 해외 청소년단체 대표들과 국내 청소년, 교사, 지도자 등 연인원 4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청소년 뿐만 아니라 어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지난 2005년 제1회 행사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열렸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방 개최 방침과 5대 광역자치단체의 유치 신청에 따라 올해는 광주에서, 내년에는 대구에서 각각 개최기로 한 바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세배 예절 봉사활동 KT전남본부(본부장 송기유) 사량의 봉사단은 28일 KT공부방으로 지정된 광주시 북구 중흥동 '지니 공부방'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세배 예절과 한복 입는 법 등을 가르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KT공부방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본부는 올해 광주와 목포, 순천에 3곳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물가안정 대책 추진

광주시 60종 중점관리

광주시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8일 "복욕,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9종과 공공요금 11종 등 모두 60종을 물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2008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유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3%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각 품목별 담당부서 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고 물가모니터 운영의 현장 지도·감시 체계를 강화, 주 1회 78개 품목에 대한 가격 동향을 시·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고증 안방서 받으세요

북구청 위생민원 서비스

광주시 북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 안방에서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위생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은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6개 업종이며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업주 변경 등)만 가능하다.

그동안 민원인은 구청을 직접 방문해 영업신고서를 작성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영업신고 신청만 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62-510-1321.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한-중 청소년 고싸움으로 하나 된다

29일부터 4일간 광주서 '민속캠프'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들이 광주지역 전통 민속놀이인 '고싸움 놀이'를 통해 하나가 된다.

광주시 남구청에 따르면 29일~2월1일까지 4일간 광주시 북구 매곡동 광주직접사수련원에서 '2008 한·중 청소년 고싸움 민속캠프'를 개최한다.

지난 1998년부터 9회째 진행 중인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의 우호증진 및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치러지며,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100명과 중국 청두(成都)의 메이쓰(美視)국제학교 학생 40명이 참가하게 된다.

이번 캠프에서 중국 청소년들은 정음성 생각방문, 5·18 국립묘지 참배, 총장문화 체험, 김치담그기 등 체험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된다. 특히 중요 무형 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고싸움 놀이를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하며 우의를 다진다.

특히 중국 청두방송국은 기자 3명을 파견해 민속캠프를 취재한 뒤 특집으로 보도할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음성 선생의 외손자와 북경국제여행사 관계자 등도 참여해 정음성 기념사업과 연계뿐 아니라 광주를 가

장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인 문화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하계·동계 캠프 등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중국 측과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남구 칠석동 마을에서 유래한 '광주칠석고싸움놀이'는 각 지역마다 형태와 규모가 유사한 것을 문화재청이 2005년 한데 묶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과거 전남지역에서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치러지는 민속놀이의 하나로 양편으로 패를 갈라 줄다리기의 줄 머리에 타원형의 고가 달린 굵은 줄을 여러 사람이 메고, 상대방의 고를 짓눌러 먼저 땅에 닿게 한 편이 이기는 놀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 도로·지하상가·체육시설 등 전담

도로관리시설공단 설립 추진

광주시가 이원화돼 있는 고속화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로 보수, 유지관리는 물론 교량, 터널, 지하차도 등 특수시설 등을 일괄 관리하는 가칭 '도로관리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건설된 고속화도로인 빛고을로(3.4km)와 무진로(5.5km),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3.6km) 등의 도로 유지, 보수의 주체가 시와 자치구로 나뉘져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는 공단이 설립되면 고속화도로는 물론 교량 등 특수시설, 지하상가, 체육시설 등의 관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설공단이 설립, 운영되고 곳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6 곳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사협력 프로그램

광주노동청 비용 지원

광주지방노동청은 28일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등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경우 소 소요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갈등관리 및 대화협상 기법개선, 기타 노사공동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업·사업장은 최고 4천만원, 지역·업종의 경우는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ony New BRAVIA TV. Features include '고객감사축제·TV중고보상판매' (Customer Appreciation Festival · TV Used Goods Compensation Sale). It lists various models and prices, such as 'X3000시리즈 15~30인치' and 'X3500시리즈 30인치'. Contact information: 062-522-2000.

Advertisement for '신대 명품 선물세트' (Shindae Premium Gift Sets).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food products and lists several gift sets with their contents and prices. For example, '신대 명품 선물세트' includes '신대 명품 선물세트' and '신대 명품 선물세트'. Contact information: 062-522-2000.